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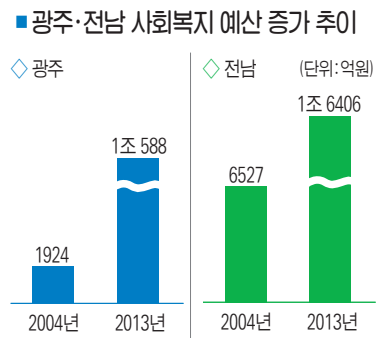
광주시·전남도 복지예산 10년새 3배 이상 늘었는데

지원체계는 구멍 송송

광주시·전남도의 내년 복지예산이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2조6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1명이 수급자 400여세대를 담당하는 등 복지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행정적 구조는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내년 2조 6000억...총 예산중 30%

복지인력 태부족 예산 새고 남기고



지난 9월에야 완료됐고, 부족한 복지인력 85명을 다른 행정직에서 빼오는 '행정직 재배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 공백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자신들의 직원을 빼가는 행정직 재배치를 꺼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회복지 수요가 매년 늘어나는데 담당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과 내후년에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3000여명을 확충한다.

복지 전달 체계가 부실하다 보니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8억원대 주식 가점 320세대이고, 이 구청의 16개 동사무소 중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명인 곳도 절반에 달한다.

또 A동사무소 사회복지직 2명의 공무원이 맡고 있는 수급 가점은 800세대다. 이들 공무원들은 "사실상 수급 가점의 사정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예산에 걸맞은 행정적 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전남도의 사정도 비슷하다. 지난 3년간 정부의 사회복지직 총원 계획에 따라 해마다 신규 복지직을 충원하고 있지만 결원과 불합격 등의 이유로 목표 인원을 채우는데 애를 먹고 있다. 올해 신규 복지직 122명 채용은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하계 U대회 선수촌 아파트 터파기 토목공사 65% 순조

24일 광주시 화정동 일원에 신축중인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아파트 토목공사가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건물의 지상 골격은 내년 3월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도심재생을 목표로 낡은 아파트 단지를 재개발한 선수촌 아파트는 현대건설에서 지난 9월 철거를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3개 단지 35개동 3726가구(전용 59~101㎡형·15~33층)가 지어지며, 2015년 4월 준공될 예정이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인수위부터 지역 탕평을”

광주·전남 출신 공직자 참여 폭 주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출신 중앙 부처 공직자들이 얼마나 인수위에 참여할 것인지 주목된다.

인수위에 과전되는 공무원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 현안을 챙길 수 있어 지역의 미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시절, 정부 부처에서 과전된 공무원은 전문위원 35명, 실무위원 38명 등 73(18.5%)이 내년에 지출할 일부 복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수위에 참여한 공무원 가운데 차관급 이상으로 기용된 인사는 10명 안팎에 이른 것은 물론 과전급 인사 가운데 상당수가 핵심 보직으로 승진 이동하는 등 승승장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 공직사회에서는 인수위에 참여하기 위한 막판 물 밀 경쟁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인수위는 분과별 간사가 정해진 직후,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인수위에 참여하는 공직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출신 중앙 부처 공직자들의 인수위 참여는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핵심 그룹의 정치적 성향 등을 고려할 때, 광주·전남지역 공직자들을 우선적으로 인수

위에 중용할 가능성이 낮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중앙 부처에서도 인수위의 논의 과정에서 부처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박근혜 당선인 핵심 그룹과 지연, 학연 등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인사를 우선적으로 추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탕평'의 의지가 인수위 구성 및 공직자 발탁 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위, '그들만의 인수위'가 구성된다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국 운영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의 화두로 내세웠던 '국민대통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지역적 처우를 최소화하는 '탕평'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알림

광주일보사 해외 테마연수 3탄

日 선진노인복지시설 견학



고품질 해외 테마여행·연수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일보가 KJ E&T와 함께 일본의 '선진노인복지시설 견학'을 실시합니다.

일본 나오키마 미술여행, 호주·뉴질랜드 동물복지 축산체험에 이어 3번째로 추진되는 이번 일본의 선진 노인복지시설 견학은 구마모토 장수원 소요카제, 가고시마 노인복지시설, 아소 특별양호노인휴수생원, 오이타 사회복지 개호 연수센터, 후쿠오카 글로벌 프라자 종합복지센터 등 일본의 최첨단 노인복지시설과 시스템을 탐방하고 배우는 명품 프로그램입니다.

노령화시대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선진화와 과학적이고 쾌적한 노인돌봄 실현을 위한 이번 연수에 노인복지담당 공무원, 복지시설·기관·단체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연수지역: 일본 구마모토, 가고시마, 벳부, 후쿠오카
- 연수기간: 2013년 1월 21일(월)~26일(토)
- 연수대상: 광주·전남 시군구 담당공무원 복지시설·기관·단체 종사자
- 접수마감: 2013년 1월 4일(금)
- 주관: 광주일보, KJ E&T
- 참가문의: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55 018-693-6604

本社人事

- ▶ 曹庚完 기획본부장
- ▶ 金吁星 논설실장
- ▶ 奇賢鎭 편집국장
- ▶ 劉任鉉 광고영업본부장 겸 임원실장
- ▶ 姜明烈 경영지원본부장 (2012년 12월 26일자)

2012 광주·전남 10대 뉴스 ▶3면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S-Class
2.6% 저금리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광신대학교
'2013' 학부정시(개군)
■ 원서접수 ■
12.21(금)~26(수)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더 넓은 세상을 보라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600여명의 취재 기자와 전세계 35개국 46개 도시에 파견한 60여명의 해외특파원망을 통해 24시간 생생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개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로 우리의 소식을 전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 연합인포맥스